

문화광장



장수명
동화작가

“해봤어? 안 해봤으면 말을 하지 마라.”
현대그룹 창업자이신故정주영 회장의 말이다. 물론, 이 말은 직원들한테 무슨 일이든 해 보지도 않고 먼저 안 된다는 생각부터 갖지 말라는 꾸지람이 들어있는 당부의 말이다. 그렇다. 세상일이 그리 호락호락 하지 않으니 미리 답안지를 작성하고 도망갈 필요는 없다. 머릿속으로 아무리 많은 생각을 하고, 말로 딱을 해서 조선을 먹여 살리는 일을 한다 해도 직접해보지 않으면 모두 허사(虛事)이며, 부질없는 일이다.

해봤어? 안 해봤으면 말을 하지 마라

‘코로나19’가 세계를 강타한지 1년이 지났다. 여전히 세계 곳곳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진 상태이고, 코로나19 백신이 개발이 됐지만, 백신 사재기 등 백신 전쟁은 예견한 대로, 미국과 일부서방국가들 사이에서 대 놓고 일어났다. 지금 세계는 백신생산을 할 수 있는 국가와 생산하지 못하는 비생산국으로 나뉘는 양극화로 치달고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다행히도 얼마 전,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백신 지식재산권 ‘(지재권)’ 면제에 지지 선언을 했다. 하지만, 지재권면제가 실행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 될 것으로 보인다. 아니 어쩌면 지재권 면제는 실현되지 않을 수도 있다. 미국 내에서 중국과 러시아에 백신 기술을 빼앗길지 모른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와 우방국들이었던 유럽연합

(EU)으로부터 “백신 수출규제부터 풀라”는 거센 반발에 부딪힌 실정이고, 게다가 빅파마 즉 대형제약사인 미국의 화이자, 모더나(Moderna) 등의 백신개발사들의 강한 반발도 지재권면제에 상당한 걸림돌이다. 그렇지만 미래를 생각한다면, 아주 단발적일지라도 백신 지재권면제는 실현되어야 한다. 세계는 서로 교류하며 일일생활권시대에 접어들어 오고 있다. 국경을 폐쇄하고 자국민만 살아가지 않는 한, 코로나19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므로 백신 생산이 어느 한 국가, 어느 한 글로벌한 제약회사의 독점적인 생산라인을 가져서는 안 된다. 또한 세계 각국은 코로나19시대를 타산지적으로 삼아서 각 나라의 의료체계를 재정비하고 갖춰놓지 않으면 제2, 제3의 코로나시대가 도래

하면 버려지지 못할 것이다. 물론 우리나라도 땀방식, 교육정책적인 행정을 더는 운영해서는 안 된다. 미래를 향한 설계를 해야 한다.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의료체계의 정비와 생명공학부문에 역점을 둔 행정개편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정책이라 하겠다.
끝으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보건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노고는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 더구나 보건소 업무분담은 “해봤어? 안 해봤으면 말을 하지 마라!”라고 할 정도로 심각하다. 정말 손이 열 개라도 모자라고, 분신술이라도 써야 할 판이다. 이제 백신접종도 원활히 이뤄지고 있으니, 모두 불편하지만 조금만 서로에게 배려하면서 이 난국을 헤쳐 나가는데 온 힘을 합치길 간절히 바라고 바란다!

사설

4차 대유행 현실화, ‘긴장의 끈’ 풀렸나

제주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최근 이를 연속 신규 확진자가 두자릿수를 기록하는 등 악화되는 양상이다. 도내 곳곳에서 집단감염이 잇따르면서 4차 대유행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제주를 찾는 관광객 증가와 맞물려 감염자가 급증하면서 방역에도 과부하가 걸렸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8일 18명에 이어 9일에도 14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지난 8일 발생한 1일 확진자 18명은 올해 들어 최고치다. 5월 들어 열흘이 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네번째 두자릿수 확진자가 나온 것은 1월 1일(13명)과 3일(10명)이었다. 최근 1주일 평균 하루 감염자 수는 9.86명까지 치솟았다.
특히 신규 확진자 가운데 상당수는 집단감염 사례다. 해군 제주 기지전대 소속 장병 3명은 지난 달 평택에서 함께 훈련을 받은 확

진자와 접촉해 감염됐다. 제주중앙고등학교 학생 확진자는 모두 7명으로 늘었다. 다른 지방 방문 이력자와 관광객으로 인한 가족 간 감염, 소규모 연쇄감염 등이 계속되고 있다. 방역 역량이 한계에 부딪힐 수 있다는 우려가 달리는 것이 아니다.
큰 일이다. 도내 신규 확진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지역내 대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어서 그렇다. 방역당국도 “4차 대유행이 현실이 됐다”고 진단할 정도다. 지금의 코로나19 상황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얘기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하루 평균 3만5000명 넘는 관광객이 제주로 몰리면서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지난달 제주지역 확진자의 67%가 관광객이거나 다른 지방 확진자와 접촉한 도민과 해외입국자 등으로 나타났다. 지역내 ‘n차 감염’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등 바짝 긴장하지 않으면 안된다.

갈길 먼 농어촌민박의 ‘안전’, 적극 대응을

도내 농어촌민박이 우후죽순으로 곳곳에서 영업중이지만 고객의 안전을 확보해 내야 하는 실정이다. 행정이 몇 년간 농어촌민박 사업자 급증에다 각종 사건·사고 빈발로 안전인증제와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을 도입했으나 극히 저조한 실적에 머물고 있다. 상당수 업주들의 안전 불감증, 관심 부족 등이 원인으로 꼽히면서 우려를 더하고 있다.
농어촌민박시설은 작년 12월부터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이지만 제주시 관내의 경우 이달 현재 대상 사업장 3021곳 가운데 25%인 752곳에 그치고 있다. 보험료가 100㎡ 기준 연간 2만원 수준인 반면 보상한도가 피해자수에 관계없이 상당액 보상에다 가입자 과실없는 원인불명 사고나 방화 등 무과실 사고에 의한 손해까지 최대한 구제해 주는 등 적지않은 혜택에도 그렇다. 다음달 6일까지인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유예 특례기간이 지나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지난 2018년 이용객 안전과 서비스 제고를 위해 전국 최초로 제주에 도입한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도 저조한 참여로 ‘유명무실’이다. 도내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업체는 현재 전체 대상 4484곳중 224곳에 그쳐 겨우 5%에 불과하다. 도입 당시 고객 성행·살인 등 여러 사건 발생으로 도입됐지만 3년 지난 현재도 제도 정착은 요원한 상황이다.
민박 업주들 입장에서 코로나19 이후 영업난에다 안전인증요건 미달 등을 내세울 수 있지만 고객 안전 확보에 ‘예외’가 있을 수 없다. 날로 치열해지는 관광시장에서 고객안전이 전제될 때 손님이 해자수에 관계없이 상당액 보상에다 가입자 과실없는 원인불명 사고나 방화 등 무과실 사고에 의한 손해까지 최대한 구제해 주는 등 적지않은 혜택에도 그렇다. 다음달 6일까지인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유예 특례기간이 지나면

열린마당

1회 10년 보장 안심보험 소홀하지 마세요



이종식
서귀포소방서 안덕119센터장

작년 제주에서 발생한 화재 515건 중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는 104건으로 20%를 넘는다. 화재 원인은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42건으로 40%에 달한다.
소방에서는 주택화재를 예방하고자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법제화했으며, 그 이후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보급해오고 있다.
주택점검을 가보면 불이 나지 않았는데 경보기가 작동해 시끄러워 화재경보기가 떴어져 있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불이 나지 않았는데 경보기가 작동해 시끄러워 떴어졌다고 한다. 비 오는 날 습해지면 화재경보기가 오작동하는데, 그런 경우엔 화재 경보기를 분리해 흔들어준 뒤 다시

시 설치하면 되고, 오작동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경우 새로 교체해주면 된다.
우리는 살면서 실비보험, 생명보험, 압보험, 자동차보험 등 각종 보험에 가입한다. 매달 일정 비용을 지불하면서 보험에 드는 이유는 혹시 생길지도 모르는 사고나 질병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주택용 소방시설 또한 혹시 있을지도 모를 위험에 대비하기 위함인데 다른 보험에 비해 소홀함이 많은 것 같다. 불과 2만~3만원 밖에 하지 않으면서 한번 설치하면 무려 10년 가까이 화재로부터 우리 가족의 안전을 책임져주기 때문에 반드시 투자해야 할 항목 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사소한 부주의로부터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는 효과는 이루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보험에 가입했어도 다지거나 아프지 않은 게 최선이듯, 소화기나 화재경보기가 집에 설치됐더라도 불이 나지 않은 게 최선이다.
지금 주택에 화재경보기가 설치돼 있는지 확인해보고, 화재경보기가 없다면 설치해 대비하고 미리 예방하는 데 경보기가 작동해 시끄러워 떴어졌다고 한다. 비 오는 날 습해지면 화재경보기가 오작동하는데, 그런 경우엔 화재 경보기를 분리해 흔들어준 뒤 다시

뉴스-in

국경 수준 코로나19 방역 실효성 의문

최근 하루 평균 10~11명 확진
○...제주도가 국경수준의 코로나19 방역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최근 하루 평균 10~11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실효성에 의문.
제주도는 10일 코로나19 상황브리핑에서 “제주공항에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실시, 감염자 발생 시 격리해서 지역사회로 전파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국경수준이라는 것이 눈에는 안보일지 모르지만 매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공항과 항만이 있는 다른 지역을 취재한 결과 제주와 비슷하게 방역과 격리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국경수준의 방역은 다소 과장된 표현으로 확인. 고대리기자

회의에서 시는 고의성 및 방역수칙 위반 정도가 심할 경우 예외 없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집합금지 위반할 시에는 시정명령 없이 고발 조치하기로 결정.
시는 또 시설 운영자를 포함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 생활지원금·손실보상금 지급 등 경제적 지원에서 제외되며, 구상권을 적극 행사할 방침. 이윤형기자

방역수칙 위반시 고발 조치

○...제주시는 5월 이후 코로나19 일 평균 확진자 수가 9.8명까지 증가하고 n차감염 확산으로 4차 대유행이 우려되면서 10일 ‘집중 방역점검 기간’ 운영에 따른 상황대책회의를 개최.

김태업 시장 ‘적극 행정’ 주문

○...김태업 서귀포시장이 10일 마련한 국·소장소통회의에서 위기가구 한시생계지원 사업과 위험도로 전수조사, 위기철 피해예방 대책 마련에 대해 관련 부서의 관심을 당부.
김 시장은 “위기가구 지원 신청 홍보가 현수막,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공무원이 개별 전화안내 등 적극적인 행정을 지시.
아울러 최근 제주대 인근 대형 교통사고와 관련 “마을 등의 의견을 청취해 교통사고가 잦은 서귀포지역의 위험도로가 전수조사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하라”고 주문. 백규탁기자

부 고
현동수(주)동민건설, 삼진도장건설)
아버지 연추현공 성민(지영업·향년 83세)
께서 서기 2021년 5월 9일 3시 28분경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 일 포: 2021년 5월 11일(화요일)
▶ 발인일시: 2021년 5월 12일(수요일)
오전 9시
▶ 발인장소: 중앙병원(이호동 소재)
장례식장 1분향실
▶ 장 지: 양지공원

부인 김완선
아들 현동수 며느리 임영순
동근 한동숙
딸 현순화 사위 고영배
순일 오창민
순애 고경주
※ 연락처 : 현동수 010-3698-8583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신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물
미국식품의약국 SCI A급 등록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 명인 / 2009 백도라지 명인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홍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방수 단열
우레탄
우레아**
방수전문건설업
석주개발
☎ 712-3644, 782-3644
010-4690-3636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제주 통신기반 구축
한라가 책임집니다.**

하고 있는 일
▶ 키폰·교환기 설치 및 유지보수
▶ 건물구내통신 설비공사
▶ CCTV 및 공청 설비공사
▶ 통신전주건설(가입자부담공사)
▶ 네트워크 설비공사
▶ 전관방송 설비공사
▶ 광케이블 포설 및 접속공사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제180008호) / ISO 9001 인증업체
한라전설(주)
대표: 현문찬
제주시 삼도1동 539-1 신산스카이빌 104호
☎ 753-0404 FAX.751-0045

정보통신의 미래 >> 티엔정보기술(주)

고객을 위한 통합 SOLUTION 제공
VOICE & 영상장비 (교환대 & CCTV) NETWORK 설비 (서버 & Network)
ONE-STOP SYSTEM
비상전원설비(UPS & AVR) 구내통신공사
◆ 열린 기술 습득 ◆ 기술인력 개발
◆ 고객 중심 사고
티엔정보기술(주)
Telecom & Network information technology
본 점 : 제주시 이도1동 1248-43번지
☎(064)722-0992, FAX (064)725-0993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